

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사고과정에서 실증주의적 잔재가 잔류함을 뜻한다. 따라서 문제시되는 것은 랑그의 추상성 정도인데 그는 Cours에서 추상성의 정도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현대언어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순수한 형식적 언어개념을 구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이론에는 실증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 그는 또한 구체적 대상으로서 랑그에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²⁴⁾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언어이론 정립의 목적으로 빠를을 희생시키고 랑그를 강조하여 한층 더 추상화하거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체적 언어기술을 목적으로 빠를을 더욱 강조하고 극명하게 정의하기도 했다. Hjelmslev와 V. Brøndal 등은 전자의 경우를 택했고 Trubetzkoy와 L. Bloomfield 등은 후자의 경우를 답습했다.

랑그의 추상화 정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것과 연관되는 사회적 기준에 관해서 의심을 품게되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표상화된, 그러나 실제로는 추상적으로 개념화된 랑그를 동시에 사회적 체계로 정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모순성이 발견된다. 비평가들은 빠를도 동등하게 사회적 체계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 언어행위에서 상호간 관련되는 언어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Hildenbrandt 1972, 24f.). Labov(1971, 113~116)는 어떤 임의의 개인에게서 사회적 양상을 고찰해야 하지만 (언어체계가 잠재적으로 모든 화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랑그의 사회적 실현 즉 빠를에서 개인적 양상을 고찰해야 함은 Saussure적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랑그와 빠를간의 개념내포의 분배가 의심을 갖게되는 정도에 따라서 랑그와 그 학문상의 이론적 우위성도 또한 그만큼 동요된다. 랑그의 존재는 물론 빠를을 통해서만이 인지된다. Cours에서 랑그의 극단적 개념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Ch. Bally와 A. Sechehaye조차도 서로 상이한 랑그개념을 도입했다. 예컨대 Bally는 완전히 새로운 랑그개념을 초안하고 Sechehaye는 빠를에 이론적 우선권을 부여했다(Scheerer 1980, 81).²⁵⁾

Cours에서 전개된 Saussure의 랑그-빠를 개념형성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러한 형성 과정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Cours에서 나타난 부정확성과 내적 모순성에서 이미 랑그나 빠를중 어느 하나를 명확히 정의하거나 그 중간개념

24) Koerner(1973, 245)는 랑그를 추상적 가치체계로 또는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자료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는 해설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강조했다.

25) 체계성과 추상성에 관한 랑그의 독점적 우위성이 약화되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언어학위의 이론 전개과정에서 장애물이 제기된 셈이다.

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ibid. 85). Godel의 랑그-빠롤의 존재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첫번째 강의(26)에서 빠롤이 언어학의 우선적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두번째와 세번째 강의에서 비로소 Cours의 기본개념이 간략하고 대립을 격화시켜 또한 불완전한 형태로 정립되었다(Koerner 1973, 221ff.).²⁷⁾ Cours의 내용과 첫번째 강의간의 차이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Saussure가 첫번째 강의 이전에 이미 관습적이고 체계적인 랑그의 특성을 강조하고 또한 세번째 강의에서도 역시 담론 Diskurs으로서 빠롤의 사회적 특성에 관해서 언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의 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Scheerer 1980, 86ff.):²⁸⁾

전거에 의하면 Saussure는 실제로 개인적 빠롤개념으로부터 사회적 랑그개념을 구별하지 않았고 실제적-잠재적 개념과 개인적-사회적 개념의 두 기본적 개념쌍에 의거해서 교차분류 형식으로 분류했다:

그는 잠재성의(부재의, 수동적) 차원에서

1) 금고trésor, 위탁물dépôt, 기억력mémoire과 유사한 개념의 특성을 지닌 주간적으로 내면화된 랑그의 의미에서 개인적 랑그개념과

2) 사회적 결정체crystallisation sociale, 사회적 생산물produit social, 사회적 분비물 sécrétion sociale과 유사한 개념의 특성을 지닌 간주간적으로 유효하고 사회적(기호학적) 관습의 의미에서의 사회적 랑그개념을 구별했다.

또 한편 그는 실제성의(출석의, 능동적) 차원에서는

1) 내면화되고 간주간적으로 유효한 랑그에 내포된 가능성의 주간적 실현의 의미에서의 개인적 빠롤개념과

2) 대체로 유추와 형태론적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적 의미의 간주간적(담화적) 생성의 의미에서의 빠롤의 사회적 개념을 구별했다(Jäger 1975, 23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aussure는 결코 언어이론을 통시적으로만 유효하고 내재적 관련체계의 의미에서의 랑그에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그 자체로 완벽한

26) Cours는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의 노트를 제자들이 그의 사후에 편집해서 1916년에 출간한 것이다. 그의 일반언어학 강의는 세 번(1차는 1891년에, 2차는 1894년에, 3차는 1908/1909년에) 개최되었다.

27) Hiersche(1972, 9ff.)에 의하면 Saussure가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빠롤에서 랑그로 전환한 동기는 Durkheim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28) 랑그-빠롤에 관한 이해는 Saussure 구조주의언어학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수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체계로서 언어개념을 설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Schleicher의 유기체이론에 대한 비판도 바로 이러한 견해를 함축하고 있다. 그 대신에 Saussure는 Humboldt와 C. Heyse에 의해서 강조된 에네레기론적 구성요소(인간의 사고행위에 의거한 체계로서의 언어)를 재도입하고 또 이것을 새로운 방법에 의거해서 이론화하려고 시도했다(ibid. 199ff.). Saussure는 Cours에서 논의되고 그 뒤에 계속되는 개념논쟁에서 한층 더 특수화된 것보다 더 복잡다양한 랑그-빠롤관계를 구상했다. 원래 그는 랑그-빠롤의 이분법을 설정하거나 그 개념중의 어느 하나에 학문적 우위성을 부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매번 유효한 랑그를 언제나 필연적으로 중재하는 빠롤을 바탕으로 언어적 의미의 발생사의 매체와 더불어 언어 역사성의 매체를 설정하려고 시도했다(ibid. 236).

2.2. 공시대와 통시대

19세기 말기부터 언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언어의 본질을 언어 그 자체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했으며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체계와 구조에 관한 연구가 자연과학적 사고의 모델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19세기를 풍미했고 고립된 언어현상의 통시적 연구로부터 통일된 전체로서 언어체계의 기능을 공시적으로 고찰하려는 구조주의언어학의 기본개념이 되었다.

Saussure(1983, 114~140)에 의하면 학문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적 요인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총체적 연구대상이 다른 학문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다. 상이한 연구대상의 요소간 등가관계 즉 가치와 관련있는 모든 학문은 후자에 속한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노동과 임금, 언어학에서 음성과 의미 등 등가구조를 취급하는 학문에서는 구조요소간의 관계를 주어진 시기에서 탐구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각 요소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²⁹⁾ 공시대는 동시성의 수평적 축으로, 그리고 통시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수직적 축으로 표현된다. 가치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성되고 복잡다양할수록 두 연구방법의 구별이 더욱 절실해진다. 공시적 연구방법과 통시적 연구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체계의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단지 우연적일 뿐이며 이러한 변화와 그 변화가 체계 전체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29) 후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 요소가 속하는 체계에서 그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언어가 항상 연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Saussure에 의하면 화자의 의식에는 언어의 공시적 사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태를 통해서 언어의 체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Saussure는 공시적 방법의 우위성을 인정했으며 공시언어학의 연구대상은 개별어이다.³⁰⁾ 통시언어학의 연구범위는 개별어의 영역을 초월한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은 랑그와 빠롤의 구분 다음으로 언어학의 두번째 분기점이다. 물론 랑그의 모든 통시적 요소의 근원은 빠롤에 있다. 다시 말해서 랑그의 변화는 빠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Saussure의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 예컨대 비역사적 기술주의는 언어학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학문분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다른 어떤 학문에서도 언어학에서처럼 절대적이고 지속적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언어이론과 언어분석 과정에서 공시적 연구방법에 대한 우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1970년도 초기에 언어학적 문제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사를 경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에 관한 논쟁은 여러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Saussure는 Cours에서 특히 1) 통시적 사실과 공시적 사실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2) 그 때문에 상이한 두 연구방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3) 공시적 현상이 우위성을 가지며, 4) 그 결과 공시언어학이 통시언어학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했다(Scheerer 1980, 89). 물론 통시태와 공시태의 구별은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³¹⁾ 공시태의 우위성을 인정한 것은 언어학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비교언어학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학문이론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반역사주의보다는 인간관계 개념의 위기와 더 관련이 있는 단명한 경향을 강화시켰다.³²⁾

공시태와 통시태를 구별함으로써 Saussure가 1) 언어이론적 또는 학문이론적 구별을 하려고 했는지, 2) 이러한 구별을 실제로 극복할 수 없는 현상으로 또는 증재할 수 있

30) “synchronisch공시적” 대신에 “idiosynchronisch”라고 지칭해야 마땅하며 공시적 연구방법은 현재 언어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31) Schuhardt의 Cours에 대한 서평 이후 특히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을 한층 더 정확히 하거나 언어의 공시적 및 통시적 두 차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Prag학파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32) 여기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어떤 사실에 관한 단명한 경향이란 설명뿐만 아니라 기술 역시 학문연구의 과제라는 견해를 의미한다.

는 것으로 간주했는지, 3) 연구과정의 필수적 진행순서로서 공시태의 우위성을 또는 절대적 특권으로서 그 우위성을 인정했는지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ibid. 92). Wartburg(1931)는 공시태와 통시태의 이론적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을 요구했다. 그는 통시태를 공시태의 연속으로 이해했는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언어사를 체계의 역사로 취급하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구조적 통시태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는 그 당시 이미 현대 사회언어학적 경향을 띤 역사언어학의 개척자로서 공시적 변동Variation과 통시적 변화Wandel와의 연관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구조화된 뼈틀의 계층을 변화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또 한편 이를 초월하여 개인적 언어행위와 더불어 초개인적 힘과 거대한 역사적 현상 그리고 객관적인 정신적 유산 등과 연관지어 언어 변화를 규명하려고 했다.

공시태와 통시태에 관한 논의는 Coseriu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Saussure 이분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Coseriu(1974, 10f.)에 의하면 극복할 수 없는 상이점은 연구대상의 층위를 연구과정의 층위와 빈번히 혼동하는 데서 야기되며 이러한 이분법의 문제는 언어이론이 아니고 언어학이론에 속한다. 또한 그는 Saussure가 언어상태의 개념 속에 부동의 범주를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언어 그 자체는 실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와 현실계간에서가 아니라 언어의 변화와 개념간에서 모순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변화하는 언어가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 언어다(ibid. 11). Coseriu는 이러한 변화를 인과관계로 보지 않고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체계다. 다시 말해서 항상 새로운 체계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언어는 또한 언어로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화한다(ibid. 24). 그의 이러한 견해는 Humboldt의 에너지론적 언어관에서 유래되었고 이로써 그는 Saussure적 해석 즉 체계와 역사의 경직된 자가당착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Coseriu에 따르면 언어는 공시적으로 기능하고 통시적으로 형성된다. 언어의 생성은 기능하기 위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이율배반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연구방법에는 비록 상이하지만 이율배반 그 자체의 극복이 포함되어 있다(ibid. 237).

의사소통 체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불변성을 전제로 한다. Saussure와 같이 뼈틀에서 기호창조 행위가 아니라 기호사용 행위만을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언어변화는 다만 비체계적 방해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Saussure가 정통과의 짝은이문법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공시적 연구방법은 통시적 연구방법보다 중시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를 통해서만이 언어의 체계성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공시대와 통시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태관계이며 공시대와 통시대의 구별은 랑그-빠롤의 이분법 다음으로 언어학의 두번째 분기점이다. 빠롤에 변화요인이 배제되어 있고 또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수용된다면 랑그로 전환되기 때문에 랑그에 속하는 통시적인 것의 근원은 빠롤에 있다.

2.3. 씨니피에와 씨니피앙³³⁾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기호체계다.³⁴⁾ 언어기호는 씨니피에(Signé(개념)와 씨니피앙(Signifiant(청각영상)의 유의미한 음성과 개념의 연합으로 구성된 일종의 정신적 실체다. 기호학은 Saussure 언어이론의 중심사상으로서 현대 기호학의 근간을 이루며 그 특성과 특히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구별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의 연구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기호에 관한 논쟁의 주요쟁점은 희랍시대의 논쟁처럼 씨니피앙과 씨니피에 즉 명칭과 사물의 관계가 자연적인가 또는 관습적인가를 규명하려는 인식론적 문제였지만 Saussure가 처음으로 언어기호가 언어학적 관점에서 단어와 사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음성영상과 개념과의 결합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시 말해서 언어기호는 씨니피에와 씨니피앙의 결합이며 양자는 종이장의 양면과 같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 이중 어느 한 면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사고는 전면이고 음성은 후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전달할 수는 없다. 양자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언어기호로서 작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덩어리로서 존재했다. 따라서 언어는 언어체계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개념이나 음성도 포함하지 않고 체계내에서 생성된 개념적이거나 음성적 구별만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Saussure에게 기호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이중적인 것이며 또한 언어외적 실체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언어의 관련체계내에서 언어내재적인 것이다.

33) 이 두 용어는 다른 용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적, 논리적 연합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34) 언어기호, 언어체계, 언어가치는 상호간 연관관계가 있는 이론적 차원으로서 분리해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사항들은 Saussure의 언어학정립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Saussure는 언어를 일종의 단순한 사물의 어휘목록 즉 명칭과 그에 대응하는 사물의 목록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없이도 그 대상의 명백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 그러한 주장은 명칭을 순수한 음성현상으로 또는 심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명칭과 사물간의 결합이 매우 단순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킨다. 이미 언급했듯이 언어기호는 명칭과 사물이 아니라 청각영상과 개념의 결합이다.

씨니피앙-씨니피에의 이분법은 언어학적으로나 언어철학적으로 많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용어가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단일현상의 양면을 표시한다면 기호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복잡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작업이 어느 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상응하는 영역을 고려해서만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의 경계설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방법으로 요약되는데 Copenhagen학파는 후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기호의 식별 및 분절방법을 발전시켰다 (Albrecht 1988, 40f.):

1) 발화연결체에서 씨니피앙의 영역에서의 분류가 의미가 있는지(예를 들면 *Les-er*) 또는 의미가 없는지(예를 들면 **ab-er*)는 대체로 씨니피에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2) 두 개의 씨니피앙(token)이 동일한 기호를 나타내는지(type) 또는 그렇지 않는지(예를 들면 *jeder zehnte floh - jeder zehnte Floh* 등 동음이의어)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경계설정의 문제는 확정된다.

이상과 같이 Saussure에 의해서 정의된 언어기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ibid. 39):

1) 언어기호의 자의성³⁵⁾

Saussure에 의하면 음성영상과 개념의 결합은 자의적이다. 따라서 음성영상/*vesto*/와 그 개념인 “Schwester자매”는 어떤 자연적 관계도 없다. 다소의 의성어를 제외하면 이 원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자의성을 어떤 개인이 주어진 씨니피에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씨니피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그 결정은 이미 언어공동체내에서 성립되었다.

35) 언어학적이라기 보다는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이분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서 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씨니피앙은 시간에 예측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형적이다. 기호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차례차례로 연속적으로 발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발화연쇄체를 형성한다. 표면상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강세된 음절의 경우 두 개의 의미를 지니는 단위(음절과 액센트)가 결합되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발화연쇄체내에서 강세된 음절과 비강세된 음절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Saussure의 언어이론중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기호 자의성의 유효성에 관한 제한성이다. 예컨대 기호의 자의성은 1) 의성어, 2) 부차적 동기부여, 또는 3) 기호의 양면간의 결합이 비편파적인 화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약을 받는다.³⁶⁾

기호의 자의성이 Saussure의 이론에서 어떤 중대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는 최근 예야 비로소 Scheerer(1980, 107~119 참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기호의 자의성은 후기 구조주의언어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호론에서 자의성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기호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언어이론이나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결합이 자의적인 것과 같이 또한 음성이나 사고의 영역에서 경계설정 역시 자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모음 a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a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a의 가치는 그 언어의 모음체계내에 몇 개의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논리가 기호의 내용면에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는 훨씬 더 불안정하다. 어느 특정의 개별어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명명될 수 있는 세계는 의식에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개별적 씨니피앙에 있어서 사고의 모호한 영역의 구분이 비로소 명료하게 구분된 의식내용에 관한 전제조건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영역의 구분은 모든 언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한 언어단위의 가치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관계 즉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구조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Helbig 1973, 38ff.).

Cours에서 Saussure의 씨니피앙의 선형성에 관한 원칙 역시 임시적이고 약간의 모순적인 면을 제외하면 Hildenbrandt(1972, 43)가 Cours의 정의에 본질적으로 더 첨가할 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것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음의 영상(청각

36) 그 이유는 화자가 그 기호의 양면간의 또 다른 결합을 알지 못하여 기호를 변경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적 개념)으로서 씨니피앙은 그 자체가 시·공간적 특성을 소유할 수 없는 심적 단위이며 빠롤의 실현에서 비로소 그러한 특징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기호의 두 가지 특성 즉 자의성과 선형성은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다. 즉 기호의 자의성은 랑그에, 그리고 씨니피앙의 선형성은 빠롤에 속한다. Frei(1972, 141)가 언급했듯이 Saussure는 랑그중심의 이론을 빠롤의 실례로서 만족해야 한다.

선형성의 개념은 Saussure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언어학자들에게도 선을 형성하는 요소의 병렬을 뜻하거나 또는 일차원적 특성을 나타내는 등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번째의 경우에서 선형성은 여러 요소가 발화연쇄체의 동일한 지점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음을 뜻하지만 두번째의 경우에서는 선이 평면이나 입체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선형성은 다차원성과 대조를 이룬다. 요소의 겹침이 일차원성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선형성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1) 기호론적 원리, 기호를 창조하는 체계 즉 언어 일부분의 특성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2) 언어기호를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필요한 조건과도 관련되며, 3) 또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Scheerer 1980, 105ff.).

Saussure의 네 개의 이분법중 여기에서 논의된 씨니피앙과 씨니피에가-가치론과 연관지어서-넓은 의미에서 구조주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개별어성의 원리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구분을 통해서 비로소 확증되었고 또 한편 당해 관계개념의 성질과 관계없이 관계 그 자체가 학문적 고찰의 자율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고를 통해서 언어(랑그의 의미에서)에는 변별성(차이성)만이 존재한다는 Saussure의 이론은 형식적으로도 완전히 이해된다. 이러한 논제는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현상이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해야함을 뜻한다. 구조주의언어학의 전형적인 두 분야 즉 음운론과 구조주의적 의미론은 이러한 근본원리에 근거를 둔다(Albrecht 1988, 43).

2.4.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연상적) 관계

Saussure의 이분법중 네번째의 개념쌍인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는 다른 세 이분법보다 다양한 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명칭까지도 바뀌었다.³⁷⁾ 이 개념쌍

37) Saussure는 계열적 관계를 연합적 “associatif”관계라고 칭했다. 세계 4차 Kopenhagen의 언어학자 대회에서 Hjelmslev가 심리주의적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associatif”를 일반

의 기원은 고대 서양의 연상관계(Kontiguitätsbeziehung)와 유사관계(Ähnlichkeitsbeziehung)의 잘 알려진 구별에까지 소급되는데 이러한 구별은 수사학적 비유의 가장 중요한 환유와 은유의 두 개념의 정의에 기초한다. Saussure가 그의 유고에 다른 세 이분법에 관해서 많은 문헌을 제시했지만 통합적 관계(rapports syntagmatique)와 연합적 관계(rapports associatif)에 관해서는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다(ibid. 361). 이차문헌에도 이에 관한 문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Saussure는 언어단위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언어의 통합적 및 계열적 관계의 개념에 접근했다. 언어단위의 동일성은 발화체의 유사성에 의거하지 않는다(동음이의어 제외). 예컨대 두 번 나타난 언어단위는 질료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실현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물론 동일성은 실체없이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역시 형식적 특성을 지니는 요소의 기능에서도 비롯된다. 언어단위의 생성은 그 자체가 무정형인 불명료한 음성체의 조음을 통한 동시적 분절로 나타난다. 사고(개념)와 질료(음영상)의 결합은 실체가 아니고 형식을 창조한다. 생성된 언어단위는 상호간 동일성과 차이점 즉 동일성과 대립형식적 관계에만 존재한다. 예컨대 언어단위는 가치이며 언어는 단순한 가치체계일 뿐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언어요소는 또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부재함에도 그 의미기능을 성취할 수 있다. 예컨대 가치로서 언어단위의 규정은 영기호 존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Scheerer 1980, 101ff.).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에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관계 즉 서로 다른 가치의 종류가 존재한다:

1) 통합적 관계 : 기호의 선형적 배열에서 언어기호는 그것이 그 주위의 것과 구별될 경우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언어요소(Cours에서는 단위를 의미함)는 텍스트에서 필연적으로 시간적 연속의 축에서(발화체에서) 잇달아서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의 연결을 통합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언제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위로 구성된다.

2) 언어단위는 텍스트의 밖에서, 화자의 기억 속에서 여러 종류의 연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적 관계는 동일한 형태론적 부류에 속하는 단어간에 이루어진다.³⁸⁾ 예컨대 이러한 종류의 관계는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두뇌 속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합적 관계라고 부른다. 위에

적인 기호론적 의미의 용어인 “paradigmatisch”로 대체할 것을 제의했으며 또한 이 제안이 채택되어 그 이후로 “계열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Koerner 1973, 370).

38) 예를 들면 공통적 내용을 갖거나(enseignement, enseigner, renseigner 등) 또는 유사하게 들리는 단어 또는 무엇인가 상호간 공통적 유사성을 가진 부류의 단어가 여기에 속한다.

서 논술한 바와 같이 통합적 관계는 텍스트에 언어요소가 나타나는 관계이며 계열적 관계는 텍스트에 언어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이다. Saussure는 연합적 계열에서는 고정된 어법만을 랑그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물론 문장은 빠를의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대부분의 Saussure 후계자들은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의 구별이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등 전통적 언어기술의 분야를 응집력 있고 연구대상에 한층 더 타당한 분류방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 이분법에 대한 해석이나 실제적 사용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의 구조주의나 상이한 여러 학파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³⁹⁾ 이들의 상이한 해석에 관한 공통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통합적이라는 용어는 언어요소가 상호간 연결되는 규칙과 관련되며 이 경우 또한 서로 다른 추상화의 정도가 구별된다. 그런데 계열적이라는 용어는 랑그의 모든 재고목록중에서 기호의 부분집합을 골라내는 것과 관계가 있으나 현재 이 작업에 필요한 선택의 통일적 기준은 마련되지 못했다(Albrecht 1988, 45f.).

최근 Chomsky(1968, 71)는 이 이분법을 구조주의언어학에서 언어기술의 두 기본작업인 분절과 분류로 간주했는데 이러한 해석은 Bloomfield학파의 분포주의에 토대를 둔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초기에 변형생성문법이 세계적으로 절정을 이루었을 때 유럽 구조주의언어학의 방법론적 원칙은 잊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분포주의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계열체를 분포부류Distributionsklasse와 동일시했다(Lyons 1969, 73~76 ; Bünting 1971, 36f.). Coseriu(1981, 162ff.)는 이러한 견해에 단호히 반대했다. 그에 의하면 계열체와 분포부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통사체의 어느 확정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모두가 계열체가 아니다. 비록 계열체는 통사체의 어느 확정된 위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바로 그 위치에서 실제로 나타남을 상호배제한다:

예1	예2
das blonde Mädchen	das blonde Mädchen
das rothaarige Mädchen	das zarte Mädchen
das schwarzhhaarige Mädchen	das kluge Mädchen

39) 현대언어학에서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와 유사한 구분으로 Verlauf(forløb)-System(Hjelmslev), structure-system(J. Firth), collocation-set(M. Halliday), opposition-contraste(A. Martinet) 등을 들 수 있다.

예1은 계열체의 경우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das blonde, rothaarige und schwarze Mädchen에서와 같이 병렬될 수 없다. 그러나 예2는 분포부류인데 그것의 요소들은 das blonde, zarte, kluge Mädchen과 같이 병렬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의 경우에서 요소들이 통사체의 동일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시 계열체의 정의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 계열체는 오히려 특정의 표현의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랑그에 속하는 요소들의 부류이다. 이러한 선택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 지배 등과 같은 일종의 통사체적 요구와 관련해서 선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요소들이 예를 들면 명사의 격과 같이 통사체의 동일한 위치에 나타날 수 없는 계열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계열체의 개념은 분포분류의 의미로 이해되는 개념으로서 Saussure의 연합적 관계와는 물론 학교문법의 계열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리적 경향이 농후한 언어학자들 역시 후기 구조주의언어학자들과 같이 계열체의 개념이 Saussure의 연합적 관계와 별로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Cours의 원래 이분법과 관련하여 고찰해 볼 때 이러한 계열체의 개념이 통사체적 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분포부류의 개념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Albrecht 1988, 46ff.).

3. 인문학 연구방법의 모델로서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

Saussure 이후 언어학에서 비롯된 구조주의는 특정의 시기에, 특정의 지적 환경에서 구조주의언어학 그 자체에서보다도 타학문분야에서 인기가 더 높았다. 언어학의 구조주의는 처음에 인류학과 민족학을 거쳐 그외의 사회과학에 전파되었는데 그 신봉자들은 모든 사회적 및 문화적 현상을 기호학(후에는 의사소통론)으로 파악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이 언어학 이외의 다른 학문분야로 전이된 사실을 비판하려는 학자들은 구조주의적 운동이 Moskau학과와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처음부터 문예학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1950년대 말기 파리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유행의” 구조주의는 우선적으로 문학, 심리학(특히 심층심리학), 철학(학문이론) 그리고 정치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ibid. 158). 예컨대 구조주의 의식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분야는 문화과학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언어학의 구조주의적 모델을 다른 학문분야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시된 것은 Saussure의 언어학적 개념을 필요에 따라 수정을 가해 변경시켜 사용하는 데서 야기되는 혼란이다. 예컨대 랑그와 빠를, 씨니

피에와 씨니피앙 등의 개념이 언어학자나 문학비평가 또는 인류학자나 심리학자에게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⁰⁾ 언어학의 연구방법이 타학문의 모델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Saussure 구조주의언어학의 기본개념이다:

- 1) 랑그와 빠롤의 구별
- 2)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의 규정
- 3) 공시대와 통시대의 방법론적 구별
- 4) 씨니피에와 씨니피앙의 구별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언어외적 사실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한 직접적으로 사실을 묘사하는 기능도 없는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관련체계다. 위의 4 개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어가 기호체계라는 사실인데 이러한 기호는 자의적이며 자연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씨니피앙과 씨니피에로 구성되었다. 구조주의는 철학적 사상이 되기 이전에는 분석방법에 불과했다. 분석방법 역시 다양한 양상과 사용법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방법 역시 상이하다. 현재까지도 구조주의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구조는 주어진 분석대상의 내부에서 논리적 응집을 형성하는 형식적 요소의 결합이고 또한 요소간의 관계라는 일반적 의미로 정의될 뿐이다. 물론 구조주의는 극명하게 정의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사회과학 특히 언어학의 연구방법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구조주의적 방법은 인류학적 문제, 특히 신화분석은 물론 무의식의 구조분석, 언어형식을 지니는 조형미술과 음악, 수학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언어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의 구조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구조주의의 근본목적은 결국 어떤 대상에 형식과 기능을 부여하는 내적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구조주의는 또한 기호학의 토대가 된다.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주의언어학의 연구방법이 하나의 모델로서 타학문분야에 적용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 효과 또한 동일하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언어학의 연구방법을 무조건 타학문에 사실

40) 예를 들면 다음의 사실에서 용어사용의 난맥상을 볼 수 있다. Lefebvre는 Lévi-Strauss가 언어학의 몇 기본개념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인 형태소의 계층과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단위인 음소의 계층을 극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정당하지 못하다. Lévi-Strauss는 결국 이러한 구별에서 모든 기호체계의 규정으로 확정된 특성을 발견했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적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분석 방법이 하나의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한편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영역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문예학은 언어학, 인류학, 심리학 등으로부터 많은 것은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유효하다.

4. Saussure 언어이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

젊은이문법학파의 실증주의적 언어연구방법(자료중심의 원자론적 방법)을 극복하고 구조주의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Saussure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언어를 기초체계로 정의하고 언어학과 타학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데 있다. 그의 새로운 언어이론은 특히 체계성과 무관한 젊은이문법학파의 이론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의미한다. 그는 언어를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즉 랑그와 빠롤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적 언어행위가 아니라 랑그로서 주어진 언어의 사회적 관습의 체계를 언어의 본질로 규정했다.⁴¹⁾ 그가 개별적 언어행위의 체계성과 불변성을 산발적 언어현상의 원자론적 고찰에 의해서가 아니고 언어의 체계성의 통찰과 그리고 상이한 추상화의 계층에 기초하여 언어체계의 연관 관계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통해서 입증하려는 데 그의 학문사적 가치가 있다(Helbig 1986, 61). 그는 Cours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어 그 자체만이 언어학의 유일한 연구대상이라고 강조했으며 랑그 즉 언어내적 체계만을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Mańcz(1969, 170f.)는 Saussure의 언어이론을 1) 독창적이 아닌 것은 옳고(예를 들면 기호의 자의성), 2) 그러나 독창적인 것을 그르다(언어학 연구대상의 정의, 전통적 문법 외에 또 다른 문법이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 이분법적 연구방법 등)고 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시언어학의 주류를 이루는 구조주의언어학은 Saussure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도 특히 커뮤니케이션-화용론적 관점에서 보면 연구대상의 범위축소 및 체계개념의 축소 등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Saussure는 랑그와 빠롤(내적 및 외적 언어학)의 비변증법적 구분, 언어 체계개념의 절대화 그리고 공시대와 통시대의 분리 등을 통해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축소 또는

41) Saussure에게 언어의 규칙성은 물리적, 생리적 현상인 음운법칙이 아니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 언어체계다.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언어체계만으로 제한할 경우 1) 언어와 관련되는 다른 모든 현상과 언어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가 언어외적 사항으로 명시되고, 2) 언어의 심리적 양상은 물론 사회적 요인과 또한 그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가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언어체계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속성과 언어변화에 관한 인과적 해명은 물론 언어체계의 분화 및 변이형의 생성에 주요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인 등이 언어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Motsch 1974, 49f.).

Saussure에 의하면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언어학이 타학문분야와 공유할 수 없고 언어학에만 고유한 기호체계의 내적 구조이고 또한 언어학은 언어학에만 특유한 방법론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언어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언어학의 연구대상에는 언어체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학 연구대상에 관한 본질적 규명은 언어의 본질과 개념규정의 연관관계에 관한 해명에서 비롯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물론 체계라는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호체계로서 언어만이 언어학의 유일한 연구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호체계가 언어의 본질 즉 언어의 모든 양상을 완전히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복합적인 것으로 언어체계는 물론 사회적 요인,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로서 언어 기호체계의 기능 등 언어의 모든 현상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대상의 확충은 물론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⁴²⁾ 다시 말해서 기호체계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의 언어외적-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언어는 인간이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위한 (인지작용) 수단(도구)이다. 예컨대 언어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 속에 존재한다(Suchland 1971, 196).

언어사의 큰 흐름을 보면 언어학자들은 언어라는 동일한 대상에 관해서 기술하고 고찰했다. 그러나 그들의 구체적 연구대상은 시대에 따라 대체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

42) 언어학 연구대상 확충의 원인이 단순히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너무나 단순하다. 대상Objekt이란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며 인간의 인식과정을 통해서 반영되는 객관적 실체의 현상이다. 대상에 대한 특정한 접근은 특정의 관심과 목적을 토대로 인식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연구대상Gegenstand은 이러한 접근에 의해서 중개되는 대상의 부분들이다. 예컨대 이러한 접근을 근간으로하여 학문의 연구대상이 확립된다(Hartung 1974, 79ff.).